



タイトル Title	世代交代と日韓関係：日本からの視覚 - 「歴史の再発見」とグローバル化 [本文:韓国語]
著者 Author(s)	Kimura, Kan
掲載誌・巻号・ページ Citation	2006年韓日学術会議：安倍政権と日韓関係：世代交代・外交争点・そして日韓協力;
刊行日 Issue date	2006-11-07
資源タイプ Resource Type	Conference Paper / 会議発表論文
版区分 Resource Version	author
権利 Rights	
DOI	
JaLCDOI	
URL	<a href="http://www.lib.kobe-u.ac.jp/handle_kernel/90000392">http://www.lib.kobe-u.ac.jp/handle_kernel/90000392</a>

Create Date: 2018-06-25

## 세대교체와 한일관계: 일본에서의 시각 - 「역사의 재발견」과 글로벌화

기무라 칸(고베대)

### 들어가기

한일 양국간에 걸친 역사문제. 그것은, 일본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가 종료되고, 이미 6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한일 관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61년 간, 한일 양국에 있어서 역사문제가 같은 비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는 「과거」인 이상, 그것이 일단 현실이 된 후에 그 모습을 바꿀 수는 없다. 「과거」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적 단계에 있어서의 어떠한 지리적 공간 안의 무언가의 총체에 불과하며, 그것 자신이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과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때문에야 말로 이런 해석과 의미는 때로 「과거」 이상으로 「현재」에 의해 좌우된다.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해는, 시대와 함께 변하며 그 중요성도 변하게 된다.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정수인 「과거」에 대한, 「현재」를 변수로 하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 하나의 단서는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와 관계를 맺는 방식의 변화이다. 문제가 되는 「과거」를 스스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 「과거」는 곧 자기 자신을 포함한 것이며, 그 인식은 그들의 「과거」와의 관계 방식에 의해 규정된다.

이에 비해, 같은 「과거」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거」는 문헌과 전문을 통해 간접적인 관계밖에 가지지 못한다. 때문에, 「과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과 달리, 「과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과거」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해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와의 관계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며, 본 보고에서는 그 변화의 일부에 대해 보고자 한다.

### 제 1장 한국에 있어서의 역사관의 변화 - 예를 들어 「광복절」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그 실마리의 하나로서, 「광복절」에 있어서의 한국 역대 대통령의 연설을 보도록 하자. 한국에 있어서,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8월 15일이 「광복절」로 제정되기 이전부터, 건국 이후의 역대 대통령은 어떠한 형식으로 연설을 하거나, 혹은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말하자면 58년에 걸쳐서, 「광복」이라는 한일의 「과거」를 둘러싼 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역대 정권은 스스로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며, 한국에 있어서의 공적인 역사인식의 변용을 보기에 적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한국의 「광복」은 그것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의한 일본의 패전에 의해, 말하자면 외부에서 「주어진」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민족의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는 바와 같이 애당초 8월 15일이 「광복절」로서 「국경일」로 정해진 것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그날이 제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일본의 패전이 결정된 날, 다시 말해 한반도가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1948년에 대한민국이 독

립을 선언한 날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952년의 광복절 연설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은,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모든 민주국가가 시인한, 축하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성시로서 인정되고 있다.<sup>1)</sup>

이승만 정권기의 「광복절」 연설의 특징적인 것은, 8월 15일이 민족해방의 기념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이라는 것이 강조되었던 점이다. 때문에 이승만은, 때로 이날을 가리켜 「광복절」이 아니라, 「독립절」로도 부르고 있다. 이승만은 재임 중 광복절 연설의 대부분을, 북한과의 엄격한 경쟁관계에 놓인 한국의 형상을 내외에 호소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54년에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오늘은 진정한 해방의 날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반도의 반이 해방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우방들이 우리를 공산당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북의 반은, 철의 장막 너머에 있어 우리 민족의 혈맥은 분단된 채로 있다.<sup>2)</sup>

중요한 것은, 이승만에게 있어 「광복절」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세운 대한민국이 진정한 독립으로 향하게 될 때까지의 이정표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이 그 자신이 직접 겪지 못한 1945년 8월 15일의 해방보다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1948년 8월 15일을 보다 중시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1960년, 소위 「4월 혁명」에 의해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이 정치에서 물러난 것은, 「광복절」에 있어서 두개의 요소, 즉, 민족 해방의 날이라는 요소와 대한민국 건국의 날이라는 요소의 발란스를 바꾸게 되었다. 1950년, 당시의 윤보선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다음과 같이 연설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역사상 항일운동이라는 과업의 결과도 있어, 제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연합국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하여 8월 15일의 해방을 맞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8월 15일의 해방은, 절대 우연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수의 애국 동포와 선열에 의한 과감한 항일 운동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sup>3)</sup>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윤보선이 굳이 한국의 해방이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당시의 한국에 있어서는 1945년의 해방이 반드시 한국인 자신의 민족해방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제 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일본의 패전에 의해 「우연히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알맞게도 다음해, 같은 「광복절」의 단상에 서게 된 인물에 의해서 확실해진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에 의해 사실상의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는 다음

1) 『대통령 이승만 담화집』, 공보실(한국), 1953년, p. 97

2) 『대통령 이승만 담화집』 제 2집, 공보실(한국), 1956년, p. 44~45

3) 『동아일보』, 1960년 8월 16일, 제 1면. <http://www.kinds.or.kr> (최종 확인 2006년 10월 23일)

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한민족의 나아가야 할 길』에서, 「광복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이 날은 우리 민족의 해방 기념일이다. 그러나 민족 해방이 자력에 의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선물」로서 연합군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해방 후 16년간의 혼돈의 시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여기서 보이는 역사관은 단순하다. 즉, 1945년의 한국의 해방은 한국인의 민족운동에 의해 쟁취된 것이 아닌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함에 따라, 말하자면 우연히 얻어진 것이다. 해방 후 한반도에서 정치적 주도권이 미소에게 주어진 것도 그 결과이다. 여기에는 「광복절」이 민족 해방을 가져온 영광스러운 날인 동시에, 민족에 대해 후회해야 할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는 인식이 보이고 있다. 때문에 1961년 8월 15일, 쿠데타로부터 3개월 후의 박정희의 「광복절」 연설도 다음과 같이 민족 해방을 축하해야 할 날의 내용으로서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다행이도 선열과 애국사자들의 숭고한 항쟁과 연합국의 위대한 승리는 16년 전 오늘, 우리에게 해방과 광명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독립과 환희에만 도취되어, 완전한 자립을 위한 체제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는 동안, 세계의 약 40개 후진국 들은 우리보다 앞서 자주 독립을 달성하고 유엔 가입을 이루었다.<sup>5)</sup>

1945년의 해방은 불완전한 것이며 그것이 불완전하게 된 원인은 한국인 자신의 역량 부족에 유래한다. 물론, 이러한 박정희의 인식을 그 자신이 소위 「친일파」였던 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 비난하기는 쉽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1945년 8월 15일에 대한 언설이, 당시 있어서는 폭넓게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의 야당, 신민당 당수이면서 한국 헌법 학회의 권위자였던 유진오는 1970년대, 해방의 날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이 가깝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1943년 카이로 선언도, 바로 수 주 전의 (1945년 7)월 말의 포츠담 선언도, 또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국내의 사람들은, 일본이 이렇게 빨리 항복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사실, 당시의 우리 민족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것이다.<sup>6)</sup>

이러한 이해는 특별히 일본 통치와의 관계를 가졌던 사람만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당시 「한국의 간디」로 불리며 재야의 운동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함석헌은 『고난의 한국민중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 박정희 『박정희 선집』 ①한민족의 나아가야 할 길, 가고시마연구소 출판회, 1970년, p.149. 원저는 1962년 발행.

5)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대통령권한대행 박정희장군 담화문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년, p.134

6) 유진오 『양호기: 보전 고대 35년의 회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년, p.134

그들은, 자신들만은 이러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선전한다. 그것은 그들이 이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을, 자못 자신이 보내준 것처럼 속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짓이다. 혹시 그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정도로 선견이 뚜렷했다면 어째서 8월 14일까지 굶신거리며 복종했던 것인가. 그때 한 마디라도 예고하여 민중을 위로하고, 용기를 내게 했다면 지금에 와서 일부러 선전하지 않아도 민중은 지도자로서 환영했을 것이다.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믿었던 사람도 없었다. 믿었다고 하면, 무지한 민중이 무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믿었던 것이고, 학식 있고, 먹고 살만하며 볼품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한 사람의 간디가, 한 사람의 마치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 몰랐다, 믿지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한다면 공짜로 얻었다고 기쁨도 배가될 것이 아닌가. 7)

1945년의 해방은 민족의 역량부족에 의한 불완전한 「주어진」 것이며 때문에 한국은 그 후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는 1980년대에 와서도 「광복절」 식전이 거행될 때 반복되었다. 1981년, 역시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획득한 전두환은, 대통령으로서 처음 맞은 광복절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타오르는 불과 같은 광복에의 염원과 끈질긴 저항이 침략 세력에 대하여 큰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연합국의 승리와 일본의 패전이라는 민족외적인 상황이 8.15 광복의 또 하나의 큰 긍정적 요인이 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만일, 민족외적인 전제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으로 해방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과 보다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해야 했을 것이다. 8)

분명한 것은, 한국에 있어서 어떤 단계까지는, 「광복절」과 그에 동반된 해방의 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눈부신 날인 동시에, 그 후의 한반도의 분단과 혼란으로 이어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실현하지 못한 민족 해방운동이 미완성인 채로 끝난 날이라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 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1960년대의 박정희에게 있어서는 「민족개조」 운동의 이유로서, 또한 1980년대 전두환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협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동원되었다.

이러한 「광복절」에 관한 분위기가 크게 변한 것은 민주화 이후, 특히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김영삼, 김대중 등의 정권에서였다. 예를 들어, 1993년 김영삼은 자신의 연설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친애하는 7천만 내외 동포 여러분.

48년 전 오늘, 우리는 큰 감격과 함께 조국 해방의 날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날의 감격을 돌이켜 미완으로 끝난 광복의 완성을 맹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9)

7) 함석헌 『고난의 한국민중사』 김학현 역, 신교출판사, 1980, p. 302

8) 『전두환 연설문집』 제 2집, 대통령비서실, 1983년, p. 217

9) 『김영삼 대통령 연설집』 제 1권, 대통령비서실, 1994, p. 368

중요한 것은, 이 무렵이 되면 「광복절」의 연설에서 한국의 해방에 있어 연합국의 역할을 거의 언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설에서 「미완성의 광복」이라는 것은 곧, 민족 통일이 달성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연설의 중점은 오히려 「과거」의 사람들이 해방을 「쟁취한」 것처럼, 「현재」의 사람들도 민족 통일을 위하여 철차탁마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무렵의 연설에서 「광복」은, 한국인이 스스로의 손에 의해 민족 자결을 쟁취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사례로서 사용되고 있다.

김영삼은 같은 연설을 다음과 같이 끝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신을 가집시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정의가 한강처럼 흐르고, 자유가 동해처럼 넘치며, 민족 정기가 마치 백두산처럼 솟아오르는, 자긍심 높은 조국을 만들시다.<sup>10)</sup>

이러한 「광복」은, 복잡한 그림자를 지우고 단순화 된 모습으로 이야기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김대중정권기에 보다 현저해진다. 2001년 김대중은 한국의 민족운동과 해방의 관계에 대하여 더없이 칭찬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위대한 광복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은 일제하의 전식민지 시기를 통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무장투쟁을 이어나갔으며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인 것입니다.<sup>11)</sup>

그리고, 이러한 전체의 흐름이 확실해 졌을 때, 지금의 노무현 정권의 특색도 확실해 진다. 노무현의 「광복절」 연설의 최대 특색은, 그것이 하나의 특유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 노무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6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 60년,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희망에 가득한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선열들도 기뻐할 것입니다.<sup>12)</sup>

여기서, 「광복」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연설의 특징은, 여기에 이어지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들의 선조는, 세계정세에 어두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세계정세를 지켜보고, 나라를 구할 방안을 제기했던 선각자들도 있었지만, 어떠한 방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에 힘이 없고,

10) 『김영삼대통령 연설집』 제 1권, p.371

11) 『김대중 저작집』 제 4권, 대통령비서실, 2002년, p.366

12)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중앙본부 홈페이지. <http://mindan.org> (최종확인 2006년 10월 23일).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운다 해도, 이것을 실행할 정도의 국력이 없고, 안에서의 싸움으로 힘을 결집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광복」을 단지 민족해방의 날로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민족 단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기회로 삼는다. 언뜻 보기에 노무현의 논리는, 박정희의 그것과 가까운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의 「광복」에 얽힌 논리의 진정한 특색은, 당시의 문제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단순히 정리되어 버리는 것이다.

인생의 기반을 잃은 국민이 지배세력에 불신을 안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과 지배세력이 둘을 돌려 버린 것입니다. 지배세력의 완고한 기득권과 독선적인 사상 체계, 부정부패와 목숨을 건 권력 투쟁, 그리고 그것에 의한 분열과 대립이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망국에 이르는 내부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중략)

나라를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에 올리기 위하여, 그리고 다시 한번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분열과 갈등의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광복」에 얽힌 「과거」의 복잡함이 선악 이원론적인 극히 단순한 구조의 문제로 환원되고, 당시의 사람들이 왜 이러한 「분열과 대립」으로 인도되었는가에 관한 진지한 고찰은 방기되어있다. 연설의 후반에서는 「먼 장래, 우리들의 자손들이 현재의 역사를 보고 우리들이 세계정세에 어두웠다고는 이야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문장마저 보인다. 여기에서 「과거」는 분명히 「현재」와 분단되고, 복잡한 그림자가 없이 「탄산지석」으로 삼을 사례가 되고 있다.

## 제 2장 미디어에서 보는 역사관의 변화 - 『아사히신문』에서의 연설을 단서로

결국, 「광복절」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전개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선 어떠한 큰 역사적 사건이 존재한다. 처음에 그것은 바로 그 사건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에 의해 그들의 입장과 부합되기 쉬운 형식으로 해석된다. 이어서, 역사적 사건 그 자체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으나 여기에 일정 범위에서 관여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사건에 여러 형식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해 애매한 형식을 그리게 된다.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상황은 변화한다. 그들은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관여도 가지지 않으며, 때문에 이것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아직 하나의 유보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의 사람들은 사건에 책임마저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젊은 날에 이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어야 말로, 그들은 때로 고의로 사건의 어떤 부분을 누락 시키고 역사적 사건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이야기로 다시 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들의 다수는, 그들보다도 훨씬 젊은 사람들이며, 듣는 이 자신은 미리 역사적 사실의 실재를 숙지하고 있지 않다. 예전에는 말하는 이도 듣는 이도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이는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건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말하는 이가 사건에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듣는 이가 사건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면, 말하는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황은 말하는 이도 또한, 역사적 사건의 실재를 알지 못하는 무렵이 되면 다시 변하게 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말하는 이 자신도 또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에 의해 역사적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며, 따라서 이야기를 믿으며 자라온 그들은 어느 날, 앞 세대가 명확히 이야기 하지 않은, 혹은 고의로 누락 시킨, 아름다운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다. 놀라움은 그들을 「역사의 재발견」으로 이끌고, 여기에서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당장에는 말할 수 없던 것이, 다시 한번 이야기되게 된다. 그러나 때로 이 단계에서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확립한 것이 되어, 사람들은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또한 선인들이 그것을 교묘히 조작하면 조작할수록 현저해진다. 때문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야기의 수정이 아니라, 이야기에 반대되는 사실과 사람들에 대한 규탄이라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어디까지나 규탄되는 부분은, 역사적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해가 존재한다. 이전의 사람들은 아름답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야기는 쓸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과거」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과의 접점을 잃고 곧이어 단순한 「이야기」로 전환된다. 그 가운데 사정이 맞지 않는 나쁜 사실은, 처음에는 고의로 간과되며 이어서 「이야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서 규탄된다. 현실과의 접점을 가진 「과거」는, 처음의 「과거」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위해 논의되는 것이 된다.

물론, 같은 상황은 일본에서도 전개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 형식을 바꾸어 매스미디어의 논조로부터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표 1은 1945년 이후 오늘에 이르는 동안 일본에서의 제2차 세계 대전에 얽힌 역사 문제에 관한 기사 건수의 변용을, 아사히신문의 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보인 것이다. 데이터 베이스의 관계상, 1984년 이전에는 기사의 표제, 혹은 데이터 베이스가 설정한 키워드 중에 해당 단어를 포함하는 기사, 1985년 이후는 표제 또는 기사 안에서 해당 단어를 포함한 기사의 건수가 표시되어있다. 따라서 이 두 시기에 걸쳐 각각의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 아사히신문에서 보이는 기사의 추이

	한국	조선	도쿄재판	야스쿠니	전범	전쟁범죄	전쟁책임
1945-49	299	1123	1005	65	418	1265	1122
1950-54	2998	8444	5	37	737	227	800
1955-59	2203	1909	0	42	329	1	361
1960-64	4944	1011	2	25	57	0	16
1965-69	3687	1925	3	81	58	19	1
1970-74	4791	2351	0	156	33	10	23
1975-79	5588	1917	6	94	79	3	10



1980-84	4669	1692	16	241	66	0	17
~~~~	~~~~	~~~~	~~~~	~~~~	~~~~	~~~~	~~~~
1985-89	14799	7376	124	1481	548	137	824
1990-94	23039	17441	136	597	513	236	1347
1995-99	30224	18804	202	754	778	572	949
2000-04	39450	28179	174	3282	1192	463	592
2005-06. 6	11615	6544	133	2571	569	129	221

데이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의 제 2차 세계대전에 얽힌 「과거」에 대한 논의가 명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 재판과 전쟁 범죄, 전범 등의 예에서 명확히 보이는 바와 같이, 일본 국내의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은 종전 직후에 크게 존재 한 후, 잠시 급속히 감소하며,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걸쳐 다시 증가한다는 동일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 특히, 도쿄재판에 있어서는 그 종료 후 이러한 미디어에 있어서는 잠시 동안 거의 이야기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한 경향이 1970년대 전반 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들 제 2차 세계 대전에 얽힌 여러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1952년의 「전범재소자의 해방 등에 관한 결의」 이후, 1955년의 「전쟁수형자의 즉시해방요청에 관한 결의」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4번에 걸친 「전쟁 수형자」의 해방에 관한 결의가 압도적으로 다수, 1953년 이후에 있어서는 전회 일치로 가결되었다<sup>13)</sup>. 1958년의 텔레비전 드라마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의 히트와 그 영향에서 전형적으로 보인바와 같이, 전쟁범죄에 관한 복잡한 감정은 BC급 전범의 처리를 통해 일반의 사람들에게도 공유되고 있었다. 당시의 일본인이 이들 문제에 대하여 강한 관심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며, 그 경향은 당시의 일본인이 오히려 이 문제를 의식적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덧붙여서, 야스쿠니신사에 관한 데이터가 다른 것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시의 일본 국내에서의 정교분리의 문제로서 야스쿠니신사에 관한 문제가 종종 떠오른 것에 의한 것이다. 이는 오히려, 반대로 당시에 있어서 도쿄 재판과 전쟁 범죄에 관한 언설이 야스쿠니신사에 관한 것과 별개의 형식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거나, 이 데이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여론에 있어서도 제 2차 세계 대전에 관한 역사, 그것도 말하기 곤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한 망각과 재발견의 과정을 명확히 관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본에 있어서는 연합국에 의한 점령을 끝내고 주권을 회복하는 무렵이 되면, 사람들은 제 2차 세계대전,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 전쟁 범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일단 피하게 되었다. 사용한 데이터 베이스가 일본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아사히신문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보적」이라 자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복잡한 모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이들

13) 흥미로운 것은, 이들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에 국회에서도 야당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의사록검색 시스템 <http://kokkai.ndl.go.jp> (최종확인 2006년 10월 23일)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데에는 소위 「전후 세대」가 유권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1970년대 이후를 기다려야 했다.

제 3장 「역사의 재발견」과 글로벌화 - 한일관계에 관한 언설의 변화

그러면, 이러한 「과거」에 얽힌 언설의 변용은 보다 가까운 시기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여기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과거」가 재발견되어가는 시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 이후의 한일 관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보려한다. 우선, 표 2 이후는 역시 아사히신문<sup>14)</sup>의 기사 중에서 「한국」에 관한 기사의 변용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 2 아사히 신문기사에서 보이는 한국관계 기사 추이

	한국	대통령	문화	역사	경제	정치	역사문제	역사인식	일본	기사 수
1984	1188	493	136	135	318	263	0	0	718	21032
1985	1818	352	214	136	408	408	0	0	961	52500
1986	2015	363	188	235	445	385	0	2	1183	53996
1987	2819	893	213	166	532	635	0	2	1286	58136
1988	4395	985	433	327	912	737	0	8	2278	101923
1989	3752	538	431	341	814	595	2	13	2053	149094
1990	4747	1223	593	689	1149	821	2	39	2875	155592
1991	4163	615	571	481	831	501	0	24	2456	181661
1992	4576	816	642	553	922	640	0	22	2638	183968
1993	4137	559	478	379	731	493	0	16	2436	190402
1994	5416	700	672	572	973	650	1	40	3245	214374
1995	5266	681	714	746	1019	807	3	146	3259	208214
1996	5138	592	596	575	857	542	4	111	3007	208248
1997	6550	733	953	684	1156	695	5	76	3663	322744
1998	6720	1013	1029	706	1624	686	31	106	4026	318453
1999	6550	603	1039	638	1174	531	18	40	3819	325749
2000	7525	1099	1278	961	1253	829	15	32	4372	338835
2001	8338	683	1375	1594	1170	729	49	201	4945	334927
2002	9390	1007	1541	1132	1194	680	27	71	5550	338484
2003	6983	877	993	705	959	610	54	54	4081	339986
2004	7214	635	1166	698	940	579	39	40	4108	339410
2005	7754	654	1317	1347	1213	780	143	252	4919	333233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주: 대통령, 문화, 역사, 경제, 정치, 역사문제, 역사인식, 일본 의 각 항목은, 한국이라는 단어와 함께 각 항목의 단어가 표제 혹은 본문에 포함된 기사의 수를 나타낸다.

표 3 아사히신문 기사에서 보이는 한국 관계 기사의 비율

	대통령	문화	역사	경제	정치	역사문제	역사인식	일본
--	-----	----	----	----	----	------	------	----

14) 聞蔵Ⅱ 비주얼, <http://database.asahi.com> (최종확인 2006년 10월 23일)에 의함.

1984	41.4	11.4	11.3	26.7	22.1	0	0	60.4
1985	19.3	11.7	7.4	22.4	22.4	0	0	52.8
1986	18	9.3	11.6	22	19.1	0	0	58.7
1987	31.6	7.5	5.8	18.8	22.5	0	0	45.6
1988	22.4	9.8	7.4	20.7	16.7	0	0.1	51.8
1989	14.3	11.4	9	21.6	15.8	0	0.3	54.7
1990	25.7	12.4	14.5	24.2	17.2	0	0.8	60.5
1991	14.7	13.7	11.5	19.9	12	0	0.5	58.9
1992	17.8	14	12	20.1	13.9	0	0.4	57.6
1993	13.5	11.5	9.1	17.6	11.9	0	0.3	58.8
1994	12.9	12.4	10.5	17.9	12	0	0.7	59.9
1995	12.9	13.5	14.1	19.3	15.3	0	2.7	61.8
1996	11.5	11.5	11.1	16.6	10.5	0	2.1	58.5
1997	11.1	14.5	10.4	17.6	10.6	0	1.1	55.9
1998	15	15.3	10.5	24.1	10.2	0.4	1.5	59.9
1999	9.2	15.8	9.7	17.9	8.1	0.2	0.6	58.3
2000	14.6	16.9	12.7	16.6	11	0.1	0.4	58
2001	8.1	16.4	19.1	14	8.7	0.5	2.4	59.3
2002	10.7	16.4	12	12.7	7.2	0.2	0.7	59.1
2003	12.5	14.2	10	13.7	8.7	0.7	0.7	58.4
2004	8.8	16.1	9.6	13	8	0.5	0.5	56.9
2005	8.4	16.9	17.3	15.6	10	1.8	3.2	63.4
	%	%	%	%	%	%	%	%

표 4 아사히신문에 보이는 전체 기사에 대한 한국관계 기사의 비율

	한국	대통령	문화	역사	경제	정치	역사문제	역사인식	일본
1984	56.4	23.4	6.4	6.4	15.1	12.5	0	0	34.1
1985	34.6	6.7	4	2.5	7.7	7.7	0	0	18.3
1986	37.3	6.7	3.4	4.3	8.2	7.1	0	0	21.9
1987	48.4	15.3	3.6	2.8	9.1	10.9	0	0	22.1
1988	43.1	9.6	4.2	3.2	8.9	7.2	0	0	22.3
1989	25.1	3.6	2.8	2.2	5.4	3.9	0	0	13.7
1990	30.5	7.8	3.8	4.4	7.3	5.2	0	0.2	18.4
1991	22.9	3.3	3.1	2.6	4.5	2.7	0	0.1	13.5
1992	24.8	4.4	3.4	3	5	3.4	0	0.1	14.3
1993	21.7	2.9	2.5	1.9	3.8	2.5	0	0	12.7
1994	25.2	3.2	3.1	2.6	4.5	3	0	0.1	15.1
1995	25.2	3.2	3.4	3.5	4.8	3.8	0	0.7	15.6
1996	24.6	2.8	2.8	2.7	4.1	2.6	0	0.5	14.4
1997	20.2	2.2	2.9	2.1	3.5	2.1	0	0.2	11.3
1998	21.1	3.1	3.2	2.2	5	2.1	0	0.3	12.6
1999	20.1	1.8	3.1	1.9	3.6	1.6	0	0.1	11.7
2000	22.2	3.2	3.7	2.8	3.6	2.4	0	0	12.9
2001	24.8	2	4.1	4.7	3.4	2.1	0.1	0.6	14.7
2002	27.7	2.9	4.5	3.3	3.5	2	0	0.2	16.3

2003	20.5	2.5	2.9	2	2.8	1.7	0.1	0.1	12
2004	21.2	1.8	3.4	2	2.7	1.7	0.1	0.1	12.1
2005	23.2	1.9	3.9	4	3.6	2.3	0.4	0.7	14.7
	%o	%o	%o	%o	%o	%o	%o	%o	%o

이 표에서부터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디어에 있어서 한일의 소위 「과거」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대 후반 이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한일의 「과거」에 관한 기사의 증가는 한국관계의 기사 그 자체의 증가와 신문지면 확대의 결과로서 전체 기사수가 증가하는 중에 크게 상대화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1980년대의 한일 관계에 관한 「역사의 재발견」에의 움직임은,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사람들의 정보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와 글로벌화에 의한 세계각지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병행하여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를 크게 감소시켜 버린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에서의 이 상황을 보다 명확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비교 대상으로 한국 미디어 데이터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아사히신문의 제휴지인 동아일보의 데이터<sup>15)</sup>를 이용하고 있다.

표 5 동아일보기사에서 보이는 일본관계 기사 추이

	일본	총리	문화	역사	경제	정치	역사문제	역사인식	한국	기사 수
1990	2574	228	284	347	836	640	0	8	1247	21602
1991	2663	275	192	216	835	481	0	5	1086	22100
1992	3169	205	222	290	977	638	2	7	1331	24429
1993	3291	297	300	258	1144	711	4	18	1368	25748
1994	3983	692	450	357	1167	726	0	14	1733	28655
1995	4273	523	636	530	1065	713	4	76	1999	32345
1996	4202	463	446	441	998	580	5	41	2129	34376
1997	3919	564	472	358	1147	564	2	15	2039	33403
1998	3673	568	542	342	1474	566	6	28	1795	29951
1999	4540	377	642	401	1083	467	1	6	2264	37503
2000	5318	514	818	548	1171	624	7	12	2600	43136
2001	6201	776	925	1032	1467	800	19	89	3624	45826
2002	6218	541	1043	766	1379	719	10	15	3746	50813
2003	5416	469	835	650	1321	702	10	13	3242	49215
2004	5467	530	825	783	1333	800	33	27	3178	47496
2005	6100	687	1143	1165	1412	890	67	76	3676	50349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표 6 동아일보 기사에서 보이는 일본관계 기사의 비율

	총리	문화	역사	경제	정치	역사문제	역사인식	한국
1990	8.8	11	13.4	32.4	24.8	0	0.3	48.4
1991	10.3	7.2	8.1	31.3	18	0	0.1	40.7

15) 한국언론재단, <http://www.kinds.or.kr> (최종확인 2006년 10월 23일)에 의함.

1992	6.4	7	9.1	30.8	20.1	0	0.2	42
1993	9	9.1	7.8	34.7	21.6	0.1	0.5	41.5
1994	17.3	11.2	8.9	29.2	18.2	0	0.3	43.5
1995	12.2	14.8	12.4	24.9	16.6	0	1.7	46.7
1996	11	10.6	10.4	23.7	13.8	0.1	0.9	50.6
1997	14.3	12	9.1	29.2	14.3	0	0.3	52
1998	15.4	14.7	9.3	40.1	15.4	0.1	0.7	48.8
1999	8.3	14.1	8.8	23.8	10.2	0	0.1	49.8
2000	9.6	15.3	10.3	22	11.7	0.1	0.2	48.8
2001	12.5	14.9	16.6	23.6	12.9	0.3	1.4	58.4
2002	8.7	16.7	12.3	22.1	11.5	0.1	0.2	60.2
2003	8.6	15.4	12	24.3	12.9	0.1	0.2	59.8
2004	9.6	15	14.3	24.3	14.6	0.6	0.4	58.1
2005	11.2	18.7	19	23.1	14.5	1	1.2	60.2
	%	%	%	%	%	%	%	%

표 7 동아일보 기사 전체에 대한 일본관계 기사의 비율

	일본	총리	문화	역사	경제	정치	역사문제	역사인식	한국
1990	119	10.5	13.1	16	38.7	29.6	0	0.3	57.7
1991	120	12.4	8.6	9.7	37.7	21.7	0	0.2	49.1
1992	130	8.3	9	11.8	39.9	26.1	0	0.2	54.4
1993	128	11.5	11.6	10	44.4	27.6	0.1	0.6	53.1
1994	139	24.1	15.7	12.4	40.7	25.3	0	0.4	60.4
1995	132	16.1	19.6	16.3	32.9	22	0.1	2.3	61.8
1996	122	13.4	12.9	12.8	29	16.8	0.1	1.1	61.9
1997	117	16.8	14.1	10.7	34.3	16.8	0	0.4	61
1998	123	18.9	18	11.4	49.2	18.8	0.2	0.9	59.9
1999	121	10	17.1	10.6	28.8	12.4	0	0.1	60.3
2000	123	11.9	18.9	12.7	27.1	14.4	0.1	0.2	60.2
2001	135	16.9	20.1	22.5	32	17.4	0.4	1.9	79
2002	122	10.6	20.5	15	27.1	14.1	0.1	0.2	73.7
2003	110	9.5	16.9	13.2	26.8	14.2	0.2	0.2	65.8
2004	115	11.1	17.3	16.4	28	16.8	0.6	0.5	66.9
2005	121	13.6	22.7	23.1	28	17.6	1.3	1.5	73
	‰	‰	‰	‰	‰	‰	‰	‰	‰

확실히 여기에 있어서도, 「역사의 재발견」에 관한 기사의 증가와 함께, 일본에 관한 기사의 양적증가와 내용의 다양화 또한 지면확대의 결과로서의 이들의 양적 증가의 상대화라는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한국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훨씬 완만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배경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문화에 관하여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한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심보다도 당초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측면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상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오늘날 보다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한국보다도 오히려 일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의 재발견」에 있어서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인식」이라는 말을 포함한 기사는 한일양국 모두에서 1990년대부터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감의 진폭은 일본에서 보다 크다.

#### 결론을 대신하여 -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의 정합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일 양국에서의 「언설」의 변화가 한일 양국의 여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도록 하자. 이용하는 것은 한일 상호의 국민의식에 대해 연속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드문 예인 아사히신문과 동아일보의 여론조사<sup>16)</sup>이다.

우선, 2005년의 한일 양국의 상호의식을 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확실한 것은 한일 양국민의 상호 의식을 생각하는 데에는 세대차가 일정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같은 점에 대하여 한일양국의 사이에서 역사문제가 급속히 주목된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사이에서 변화를 보도록 하자. 다시 확실한 것은, 여기에 있어서도 상호에 대한 감정을 크게 악화시킨 것은 젊은층보다도 오히려 연령이 높은 층이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소위 「과거」의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대립할 경우, 연령이 낮은 층보다도 연령이 높은층이 여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경향은 적어도 일본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모순 된다는 것이다. 즉,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본에서는 젊은층에서 『험한류』가 베스트셀러가 된 데서 보이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감정의 악화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비교적 연령이 높은 층, 중에서도 50대 이상의 여성에 있어서는 「한류」현상에 의해 한국에의 감정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한, 한국에 대한 감정을 크게 악화시킨 것은 중고령자층이며, 50대 이상의 여성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감정은 확실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모순된 결과가 보이는 것은, 필시 다음과 같을 것이다. 지금의 일본에 있어서는 정보사회화와 글로벌화의 진전에 의하여 한국에 대한 언설의 다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한일 양국의 상호 관심은, 상호의 국가와 사회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일부만을 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부에 있어서의 관심의 고조는 사람들의 일본, 혹은 한국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연령이 높은 층이 낮은 층보다 소위 「과거」에 얽힌 현상을 직접 상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연결시키기 쉬운 것은 아마 그들의 일부가 여전히 이들 문제를 한일관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삼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글로벌화의 결과로 진전되는 관심의 다양화. 그것은 장래의 한일관계에 두 가지를 시사한다. 관심의 다양화는 「과거」를 둘러싼 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상대화 시켜간다. 때문에, 장래적으로 여론은 이 문제로 유래한 상호 인식의 변화의 진폭을 점차 작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상황은 양국에 있어서의 상호에 대한 관심을 분단시켜, 어느 특정한 정치적 타협과 화해를 위한 시도가 효과를 가지기 힘든 상황도 만들어 나갈 것임에 틀림없다.

16) 「일한중국제조사」, 『아사히총연 레포트』 2005년 6월 및, 「일한중미 4개국 조사」, 『아사히총연 레포트』 2001년 2월 및, 聞蔵Ⅱ 비주얼, 한국언론재단 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참조.

